글. 김은배 중앙지회 복십자의원장

결핵상담실

Q 지난 3월 호흡곤란으로 병원 방문 후 폐에 물이 있다고 하여 삼출액 제거 후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ADA 수치가 첫 번째 검사결과 125.6, 두 번째 검사결과 120.5로 조금 높다고 했고(혈액검사, 객담검사 이상 없다고 함) 결핵성 늑막염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하였고 7월 3일에는 출산을 하였습니다. 현재 아기는 결핵반응검사 후 진행하기로 해 예방접종이 안 된 상태이며, 모유수유 중입니다.

9월 초 6개월 동안 약물을 복용하여 주치의는 약물을 중단하자고 하였으나 엑스레이 상 폐가 안 좋아졌다며 3개월 추가 복용 중입니다.

1. 아이에게 결핵반응검사를 꼭 해봐야 할까요? 전염 가능성이 있나요?
2. 약물을 복용하면서도 분유보다는 모유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모유수유를 하고 있습니다. 호흡기내과에서는 모유수유가 가능한 약이라고 하고 소아과에서는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3월 입원 당시 삼출액을 제거하였으나 조금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 깊이 숨을 쉬거나 재채기를 하면 아픈데 괜찮을까요?
4. 다른 검사 상 이상이 없었으나 ADA 수치가 조금 높다고 하여 결핵성늑막염으로 진단할 수 있는 건가요?

A 1. 출산 전부터 이미 약을 복용 중에 있고 현재 전염성이 없다면 굳이 결핵반응검사를 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비시지를 맞히지 못한 채 출산 후 2개월이 경과했으므로 결핵반응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결핵 1차 약으로 치료 시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소량이라도 아기가 불필요하게 약을 계속 먹게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현재 산모가 전염성이 없다면)모유에 나오는 양이 아주 소량이므로 모유수유를 중단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일단 흉막염이 생기면 치료 과정 중에나 치료 후에라도 가슴통증이나 결림 등의 증상이 올 수 있는데, 병이 악화되지 않고 있다면 치료를 받으면서 경과를 잘 보시면 될 것입니다.
4. 다른 폐질환을 배제할 수 있으면서 흉수 검사 상 ADA가 많이 상승했다면 결핵성흉막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검사하려면 흉수가 고일 때 흉수 결핵균 배양검사 및 흉막 조직검사 등을 해 볼 수 있습니다.

Q 갑자기 객혈을 하곤 결핵으로 판정받았습니다. 3개월 된 아기가 있어서 격리 중입니다. 아기는 엑스레이와 CT를 촬영했는데 이상이 없고 투베르쿨린 반응검사에서 이상이 있어서 지금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은 지 2주가 지났는데 아기와 함께 지내도 될까요? 엄마가 5년 전에 결핵을 앓고 완치되었습니다. 엄마도 엑스레이와 CT 검사를 했는데 별 이상은 없었지만, 이후 마른기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추가로 검사할 게 있을까요?

A 폐결핵 약물치료 시 다제내성 등 내성결핵이나 심한 결핵, 재발 결핵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대개 치료 시작 후 2주 정도 지나면 전염성은 소실되지만, 확인하시려면 다시 객담검사를 해 보시면 됩니다. 모친의 경우 객담검사를 3회 정도 하신 후 균음성이라면 일단 대증치료

를 하면서 경과를 보셔야 하므로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현재 만 17세 여학생입니다. 감기몸살 증세로 집 앞 소아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주로 밤에 열이 38도와 39도를 오르내리던 중 가래기침을 시작하여 큰병원으로 가보라는 의사의 소견대로 종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할 당시 열이 40.1도였습니다. 엑스레이로는 아래쪽에 폐렴이 심하며 물이 찼고, 결핵은 주로 위쪽에 보이니까 결핵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CT를 찍었는데 CT모양으로는 결핵이 의심된다 하여 결핵약을 처방받고, 객담 도말검사, 피부반응 검사, 혈액검사와 혈액 유전자 검사를 했지만 모두 음성으로 나와 현재 객담 배양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결핵 환자 2명, 전염성 없는 보균자 3명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과 접촉한 적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CT와 학교 결핵환자 발생으로 결핵이 의심된다고 결핵일 확률은 반반이라고 약을 먹는 게 좋겠다고 하고 배양검사에서 음성이어도 확실히 결핵이 아니라고 말은 못한답니다. 지금은 엑스레이와 피검사결과 많이 좋아졌고 열도 없고 기침은 조금 있지만 퇴원하여 학교도 가고 있습니다. 계속 결핵약을 먹어야 할까요? 또 등교는 괜찮을까요?

A 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폐렴일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일반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결핵에 의한 폐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의 내용으로는 이를 구별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며, 담당의사와 잘 상의하여 다른 원인보다 결핵일 가능성이 높다든지, 실제로 결핵약을 복용한 후 호전되기 시작하였다면 결핵치료를 계속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결핵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3주 이상 약을 잘 복용하면 대개 전염성은 소실되므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Q 결핵의심으로 약을 복용했습니다. 이날 아기도 엑스레이랑 피부반응검사를 했는데, 12mm 나왔네요. 4개월 아가입니다. 확정 판정이 안되었을 때 엑스레이도 깨끗하고 예방 차원에서 한 달간 약을 먹었습니다. 폐결핵 판정을 받고 활동성 결핵이라 약을 계속 복용했는데, 아이와 각방을 쓰고 함께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주의했습니다. 이제 친정엄마가 봐줄 수 없어 제가 봐야 할 상황인데, 2주 후면 전염성이 떨어진다지만 면역력 약한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위험할까봐 걱정입니다.

A 문의자께서 결핵약을 복용한 지 약 3주 되었으므로, 다제내성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전염성은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객담 결핵균 검사를 2회 정도 더 해 보시고 계속 균음성이라면 아기와 함께 생활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아기 정면에서 기침이나 재채기 등은 삼가시고, 환기를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아기든 성인이든 단순히 감염된 잠복결핵은 별 증상이 없습니다. 아기가 약을 잘 복용하고 있으면서 먹거나 노는 데 별 문제가 없다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정기적으로 담당의사의 확인이나 진찰 등을 권합니다.†